

교육과정 세움 주간 운영 새 학년 준비 만전 기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 내일까지 설정... 학교별 교육철학 공유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2025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세움 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및 학년 교육과정 운영을 협의하는 등 새 학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모든 초등학교는 새로 구성된 전 교직원과 함께 2025학년도에 추진할 주요 교육활동에 대해 소통하고 협의하며, 학교별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새로 전입한 교직원들의 적응을 위해 학교 탐방 및 다양한 친교 활동도 진행한다.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원 연수, 전문적학습 공동체 조직, 학생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협의한다.

한편 교육과정 세움 주간이 끝나면

각 학년 및 업무별 교사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학년별, 업무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교육과정 세움 주간은 안정적인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학년 및 학기 변화 시기에 교직원들이 교육과정 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9일 전주 데메이 호텔에서 '2025 지방공무원 디딤도울 소통'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신규공무원들 적응 성장 돕는다

전북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 디딤도울 소통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19일 전주 데메이 호텔에서 '2025 지방공무원 디딤도울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딤도울은 선배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그룹활동을 통해 신규공무원들의 적응과 성장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선배 공무원인 도 우리 54명과 신규 공무원인 디딤이 143명 등 모두 197명의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

며 조직 내 유대감을 강화했다.

특히 역할극을 통해 선후배 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으로써 공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디딤도울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조직이 보다 화합하고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선후배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조직문화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

교원양성대 총장협의회장 선출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사진)이 2025년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의 교원양성대학교 총장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과 교원 양성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협력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이에 박 총장은 2025년 3월부터 1년 동안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를 이끌어, 우수한 초등교원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늘봄학교 강사 연수

전주교육대학교(박병춘 총장)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전라·제주권-전북특별자치도 늘봄학교 강사 연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5년 늘봄학교 1~2학년 첫 도입을 앞두고 늘봄학교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2일 1차 연수를 시작으로 19일 2차에 걸쳐 각각 3일간 기초·공통과정과 2개의 심화과정 등 총 18개의 강좌에 약 800여명이 참여했다.

심화Ⅰ과정은 음악 등 9개 영역을 광주교대, 제주교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심화Ⅱ과정은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해 국악한마당 등 9개 과정의 연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박병춘 총장은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지역의 우수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도내 대학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 잇따라

전주대 “새로운 여정 축복”

학사 1885명 등

총 2026명 학위 수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9일 예술관 JJ아트홀에서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885명, 석사 100명, 박사 41명을 포함한 총 2,026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에 차준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 이성운 국회의원, 임정엽 총동문회장, 한정립 국민연금연구원장, 서화평 전주대학교발원목회자협의회회장(이하 전발협) 및 교무위원을 비롯한 졸업생과 가족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한병수 선교봉사처장의 지도를 시작으로 △학사보고 △총장식사 △이사장 격려사 △축사(이성운 국회의원, 임정엽 총동문회장, 한정립 국민연금연구원장) △시상식 △학위증 수여 △이사장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장성구(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이기선(탄소융합공학과), 학사 조철기(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학생에게 이사장상을 수



19일 전주대학교 예술관 JJ아트홀에서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박진배 총장(사진 오른쪽)이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여했다. 이 외에도 총장상(성적우수), 공로상, 총동문회장상 및 전발협회장상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한 학생들을 선발해 시상했다.

박진배 총장은 “졸업은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인재이기에, 배움을 계속하고 나눔과 협력을 실천해 세상을 빛내는 자라

스런 슈퍼스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학위수여식 이후에는 학과별로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주변 및 스탠더 등에 포토존을 설치해 졸업생들이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주대 캐릭터 ‘제이제이’도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졸업생들과 즐거운 추억을 더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꿈을 향해 나가는 인재 돼 달라”

교육학사 등 총 294명 수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황학당에서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병춘 총장을 비롯한 역대 총장들과 김태수 총동문회장, 국민은행 남기홍 본부장 등 내외빈과 졸업생, 학부모가 참석해 미래 교육을 선도할 우수 인재들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교육학사 270명과 교육학사 24명 등 총 294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고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이 △총장상 △도교육감상 △동창회장상 △KB국민은행장상 △한국교통회장상 △공로상을 받았다.

특히, 공로상은 대학을 알리며 타



지난 18일 오전 11시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박병춘 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의 모범이 된 총학생회 부회장과 전국교대 좋은수업 탐구대회 수상자 7명에게 수여됐다.

박병춘 총장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배운 가르침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현장을 이끌어 갈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가는 인재가 돼 달라”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 논의

전북교육청, 전주공고서 현장실습 공청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기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 및 성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북교육청 공용선 장학관(직업교육

담당)의 '2025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안)'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현장실습 운영 기간 및 시기 △선도기업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취업 준비 중인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올 학교운영위원회 기본계획 안내

전북교육청, 학운위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 학교운영위원회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개

정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자체 규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학교운영위원회 유공자 표창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교사 행정업무 이렇게 줄인다’

전북교육청, 학교업무지원센터 지원 강화

올해 유치원 자원봉사자 위촉 지원 등 추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학교업무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른 173명의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가장 희망하는 업무 11개를 포함한 총 22개의 업무를 지원해왔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지원 업무는 △기간제교사 채용 지원 △반과후 돌봄교사 지원 △특별실(도서관, 과학실) 정리 △교과서 수급, 정산, 재고관리 △전북에듀케어 업무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인력풀 구성 등 이다.

이를 통해 업무 지원을 받은 교사들의 만족도가 82.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인력 채용 지원 업무에 대해 기존 서류심사는 물론이고 면접심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자원봉사자 위촉 지원과 교사 맞춤형 업무 지원 등 올해 새로 지원하는 업무도 있다. 전북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초등학교 50개교에 교무업무 지원 교사를 배치해 교무기획, 연구장학 등 교무업무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튜터도 지난해보다 50명 늘어난 250명을 배치하고, 학교업무 플랫폼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4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결과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한일대학교 봉사교육관에서 '2024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결과보고회'를 열고,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들은 핵심과제인 운영시간 확대, 교사 추가 배치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을 통해 내실있는 교

육·보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공동체컨설팅·교원 연수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96.3%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싱가포르 자매대학교

교환학생 확대 등 방안 협의

전북대학교 김순태 정보혁신처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최근 싱가포르 자매대학인 테마섹폴리테크닉대학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 처장 등 일행은 최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우탄 키(AW Tuan Kee) 부총장 및 관계교수 10명을 만나 교환학생 확대 등 다양한 교류 방안을 협의했다.

양 대학 주요 관계자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어학연수단 파견, 단기 문화 프로그램인 '더 필립코리아' 등의 확대 추진에 협의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및 컴퓨터인공지능학부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세미나, 워크숍, 온라인 강의 및 자료 공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대 RIS 미래수송기 기사업단의 추진으로 이뤄졌으며, 양대학 방문단 및 교수진은 추가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